01 교회소식
사랑과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늘 체험할 수 있다.

02 생명의 말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자녀를 얻고자 사람을 창조하고 경작하신다.

03 권능의 역사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군요!"
권능의 기도로 암, 고질적인 폐질환, 기흉이 치유되고, 7.62 cm 난소 종양이 사라지는 등 성도들의 간증은 끊이 없다.

04 간증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주 안에서 값진 연단을 통해 넘치는 축복을 받은 노경태 장로와 가뭄, 홍수의 재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해외 간증.

만민뉴스

제733호 2016년 4월 1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가난, 질병, 재앙 두렵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임하는 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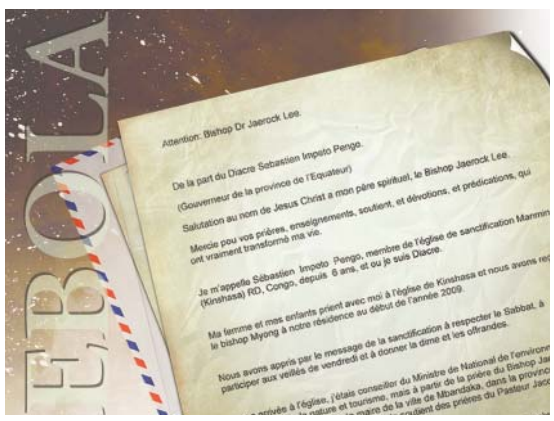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병과 상관없이 강건하기 원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부요하기 원하시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길 원하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다. 혹여 질병이 틈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간증은 무수히 많다(3면 참조).

이사야 58장 13~14절에 "…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 하셨다.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다. 즉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가 보호받고 축복받는 열쇠인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는 물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으로 영광 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업터·일터에 축복을 받아가고 있다(1, 4면 참조).

이처럼 가난, 질병, 재앙과는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이 넘치는 국내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에볼라가 퇴치되었습니다!



세바스찬 임페토 팡고 집사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저는 정치에 입문한 뒤,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었으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공직에서 거듭된 승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에쿠아퇴르 주지사로 재직할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에볼라는 감염률이 높고 치사율이 50~90%에 달하며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수도 킨샤사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조셉 카빌라 대통령의 특명을 받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2011년에 딸 마뉴엘라가 출생할 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당회장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살아나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바가 있었기에 한국에 서신을 보내 에볼라 퇴치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

2014년 9월 16일, 저는 믿음으로 당회장님께 기도요청 서신을 보냈고, 당회장님께서 21일에 기도해 주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 매일 에볼라 바이러스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던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날로부터 새로운 발병 건수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조셉 카빌라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멈췄음을 선언하였지요.

에볼라를 퇴치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팔의 대지진 속에서도 보호받았습니다!

이혜천 목사
(네팔만민교회 담임)

2015년 4월 25일, 오전 11시 56분경의 일입니다. 네팔에서는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이날도 여느 때처럼 대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은 식사를 하려고 아래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낮 12시가 되기도 전에 7.8의 강진이 왔고, 1시간 이상 계속되자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깥 도로로 대피했습니다.

피신한 성도들은 다른 건물들에 비해 폭이 좁고 높은 교회건물(오른쪽)이 마치 놀이기구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너무나 위험천만하게 휘청대자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후 1시가 되자, 2시 예배를 기도회로 대체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뒤 교회에 남아 있고자 하는 성도들과 함께 건물 뜰에 있는 식당에서 기도했지요.

오후 5시 45분, 매일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 시간이 되자 성전에서 GCN 방송 생중계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

그 다음 날인 일요일,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시상식이라 GCN 생방송으로 당회장님의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때 저희 네팔만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지요. 언론 보도에는 일요일에 전날 강진과 비교할 수 없는 9~12의 초강진과 큰 비, 히말라야 눈사태 등이 예상돼 어느 누구도 살아남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능의 기도로 성도들이 있는 곳은 물론, 208개 지·협력교회들(4월 현재 220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회장 이재록 목사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2:7)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동산을 창설하신 후 사람을 그곳에 두신 것 또한 알 수 있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친히 흙으로 빚으셨지요. 오장 육부와 모든 조직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령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흙으로 빚은 형상이 어떻게 살아 움직입니까?" 하며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이 로봇이나 컴퓨터, 인공장기나 인공 피부를 만드는데,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 한계를 만들기에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곧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 안에는 부모의 모든 기가 결집되어 있어 외모는 물론 성격, 지능, 습관 등이 닮아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한 대로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단지 겉모습뿐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령, 곧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선과 빛, 진리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덴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경작하시는 이유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지'를 깨우치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에 비유하셨습니다(마 13장). 또한 알곡과 쭉정이 비유(마 3장), 곡식과 가라지 비유(마 13장)를 통해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과정이 바로 경작과 같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농부가 추수를 위해 땅을 경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경작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참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의 권세, 엄격한 공의 등 신성적인 면과 함께 사랑과 긍휼, 자비 등의 인성적인 면이 있으십니다. 사람처럼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로이 홀로 계신 것보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옆에는 수많은 천사와 천군들이 있지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참자녀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로봇과 때때로 말썽은 부리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누가 더 소중할까요? 아무리 순종 잘하는 로봇이라 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녀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자녀를 얻고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3. 알곡과 쭉정이

농부가 최선을 다해 경작해도 추수 때는 알곡만이 아니라 쭉정이가 섞여 나오기 마련입니다. 쭉정이는 먹지도 못하며 알곡과 함께 곡간에 넣으면 알곡까지 먹지 못하게 되므로 거름으로 쓰거나 불에 태워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경작하시고 최후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이란 지옥 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 경작을 마감하시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게 되지요. 이때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된 사람들은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부지런히 죄악을 벗어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지요. 반면에 쭉정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알곡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정욕을 좇아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쭉정이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알곡되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딤전 2:4).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지요.

그럼에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쭉정이에 불과하므로 알곡된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들일 수 없지요. 미움, 시기 등 온갖 악을 가진 사람들을 천국에 들이면 아름다운 천국이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영혼은 영원불멸하므로 소멸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모아서 영원히 지옥에 가둬 두는 것이지요. 쭉정이가 된 영혼들은 각자의 죄값에 따라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이재록 목사 저서 『지옥』 참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진 알곡, 곧 참자녀로 나와 영화로운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믿음은 응답과 축복의 통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는다.

각종 암을 비롯 폐질환, 뇌혈관 질환 등 갖가지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재지변에서 천기를 움직이시는 권능을 체험하며, 사업터에 넘치는 축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유방암을 치료받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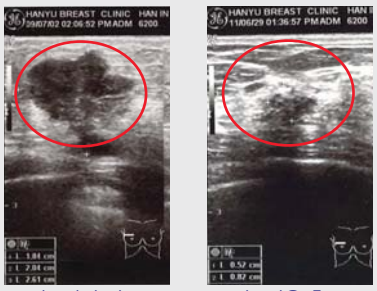
한인옥 집사 (60세, 1대대 4교구)

2007년, 유방촬영과 초음파 조직검사 결과 2.2 cm 크기의 침윤성(invasive) 유방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는 간증을 보고 들었기에 저 또한 하나님께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치료받기 위해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갔습니다. 매주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제 마음을 비추어 보니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운해하는 등 나쁜 감정들이 발견되었고, 하나님을 믿기 전 우상 숭배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우치며 철저히 회개하였지요. 또한 있는 곳에서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좇아 행했습니다.

2011년 6월 10일, 특별 은사집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통증이 사라지고 멍울도 점점 줄더니 29일 병원 검사 결과, 유방암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초음파 검사



▲ 기도받기 전 : 유방암 크기 2.5 cm

▲ 기도받은 후 : 유방암이 있었다는 흔적만 보임

기흉과 폐질환이 치료되어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저는 2003년,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폐가 손상돼 폐 수술(흉관삽관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감기나 기관지염에 걸리면 호흡기 질환으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곤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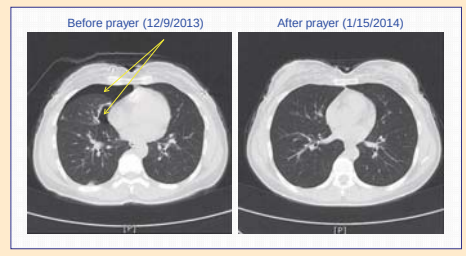
이선우 집사 (51세, 1대대 2교구)

복음성가 가수로 찬양사역을 하던 중, 2010년 6월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금요철야예배 특송을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감기로 인한 기침과 가래가 심해지더니 객혈과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가슴 통증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무사히 특송은 마쳤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흉부 CT 촬영을 했지요. 그 결과, 오른쪽 폐에 이상이 있고 재발성 기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마음을 발견하며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더니 기침은 즉시 멈추고, 가래도 점점 줄더니 다음 날은 완전히 멈추었지요.

2014년 1월 병원 검사 결과, 기흉이 치료됐을 뿐 아니라 폐도 깨끗하고 건강해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 기도받기 전 : 우측 폐에 기흉 현상 (노란색 화살표)

◀◀ 기도받은 후 : 기흉이 소실되고 정상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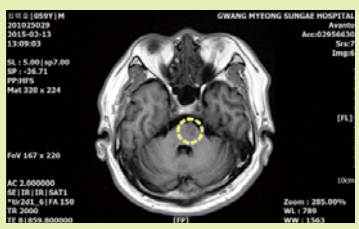
뇌경색을 치료받아 자유자재로 걷고 뜁니다

최백호 집사 (62세, 2대대 14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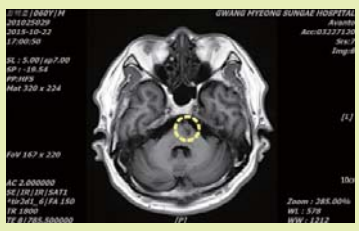
2015년 2월, 갑자기 뇌경색으로 인해 오른쪽에 마비가 왔습니다. 저는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에만 매달려 급기야 기도를 쉬고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물론 그동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제 고집대로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으니 급속도로 호전되어 한 달 반만에 혼자서 걸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절뚝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들으니 제 자신이 더욱 발견돼 회개의 눈물만 흘렸지요 마침내 8월 3일,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은사집회 시 당회장님께서 전체를 위해 환자기도를 해 주실 때 힘이 주어지더니 완전히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 기도받기 전 : 좌측 뇌교에 경색소견을 보임



▲ 기도받은 후 : 좌측 뇌교에 경색소견이 안정화 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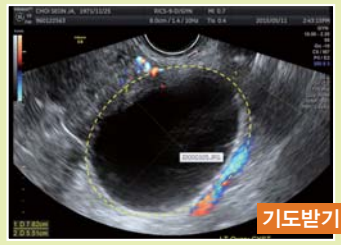
7.62 cm 난소종양이 사라졌어요

최선자 권사 (48세, 2대대 13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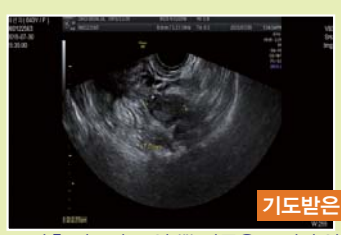
2015년 5월, 병원에서 기능성 위장장애가 있는 데다가 왼쪽 난소에 7.62 cm나 되는 매우 큰 종양이 있으니 당장 수술을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내 제 신앙을 돌아보니 교만과 판단, 정죄, 불편한 마음 등이 발견되어 회개하였지요.

6월 5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전체를 위한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그 뒤 맑은 선홍색 피가 5일간 지속적으로 나오더니 몸이 가벼워졌고, 오십견 증상도 사라졌지요. 작정 기도를 하며 더욱 말씀대로 행하고자 힘썼더니 6월 17일 병원 검사 결과, 혹이 1.95 cm로 줄어들고 기능성 위장장애도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온전히 치료받고자 3일 금식을 한 뒤 7월 30일에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 좌측 난소에 7.62 cm 크기의 낭종이 보임



▲ 좌측 난소만 보일 뿐 낭종은 보이지 않음

4 Spring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6. 4.10~ 4.16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 2차 영혼육 2~6
- 하나님을 만나려면
- 십자가의 도 6~10
- 아버지 하나님만
- 창세기 강해 6~10
- 생명의 씨 1~4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2
- 요한일서 강해 28~34
- 요한계시록 강해 77~83

GCN TV설교

- 육과 영 9~13 (이수진 목사)
- 순종 (이미영 목사)
- 막달라 마리아 1 (이미경 목사)
- 행함 2 (이희선 목사)
- 욥기 강해 22 (신동초 목사)
- 열재앙 12 (정구영 목사)
-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이관규 교육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4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54
- 내 마음의 찬양 30
- 창조와 과학 4
- English 2
- 모두 드려요 45
- 뷰티풀 라이프 3
- 즐거운 요리 8
- 흥겨운 소리 3
- 옛날 옛적에 12
- 플로리스트 10

해외성회 프로그램

- 페루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37
- 회상 [시즌2 종합편]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노경태 장로 (서울중앙에셋(주) 대표이사, 2대대 19교구)

저는 아내의 전도를 받아 만민중앙교회의 양 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존경하며 충성하는 일꾼이 되니 사업터에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IMF(외환위기) 이후 벤처 열풍이 불자 무리한 대출로 코스닥 상장을 위해 20억 이상 규모의 회사를 설립했다가 2000년 12월, 부도를 내고 말았지요. 연일 빚 독촉을 받고 어린 딸과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지하방, 옥탑방을 전전하며, 인력시장에 나가 하수구 맨홀 청소,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사심, 욕심, 교만이 초래한 결과였기에 중심에서 통회하는 마음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업터에서 부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이후 2005년 7월, 지인의 소개로 신한생명 보험대리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험업계에 대해 문외한이었지만 교회에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시작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매달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으며 일일이 여쭙고 의뢰하였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정도 경영'을 누누이 강조하셨기에 저는 그 가르침을 회사 경영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최우선적으로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사람의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에셋(주)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중부, 영남, 호남 총 3개 지사와 춘천, 여수, 부산에 지점이 있으며, 천안과 제주에 출장소를 둔 전국을 아우르는 대규모 회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종신부분 대상을 포함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신한생명 영업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하였지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의회, 부천시청에서 포장

2016. 3. 8. 신한생명 영업대상 5년 연속 수상 시(오른쪽, 당시 신한생명 이성락 사장)

증, 표창장, 공로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고용된 경영인으로서 날마다 내가 앞서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값진 연단을 통해 참된 복을 주시며, 복된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려 가뭄이 해갈됐습니다

다니엘 로젠 목사 (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회장)

2009년 당시 이스라엘은 수년간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재록 목사님께서 9월 6일과 7일, 예루살렘에서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인도하시던 중 이스라엘에 많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성회가 마친 그 다음 날부터 뉴스에서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요. 그뿐 아니라 일주일 뒤에는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가던 중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한 차례 더 기도를 요청해 10월 4일 주일 대예배 시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이스라엘 곳곳에 비가 내렸고,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최대 영자 일간지 '예루살렘 포스트'와 이스라엘 히브리어 유력 주간지 '콜 하이르', 하레츠(haaretz.com), 인빅토리(invictory.org)에 기사로 실렸지요. 기도해 주신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권능의 기도로 강의 범람을 막을 수 있었어요

미카 쿠퍼 박사 (WCDN 호주 디렉터)

WCDN(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 호주 콘퍼런스 조직위원장인 저는 2011년 1월 12일, 한국의 이재록 목사님에게 메일로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당시 저희 나라에 큰 홍수가 나서 퀸즈랜드 주에 있는 브리즈번 강의 수위가 8미터 가량 차오르면서, 빌딩들 밑 부분이 물에 잠기고 강 인근과 시내 등 대부분이 물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밀물과 댐 방류가 겹쳐서 24시간 내에 심각한 재난이 예상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참으로 놀랍게도 그렇게 심하게 내리던 폭우가 그쳤습니다. 만일 일기예보대로 비가 와서 강물의 수위가 불어났다면 수천 가구가 더 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2011. 1. 13. 호주 브리즈번 강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기사

권능의 기도로 더 이상의 재난이 없도록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이재록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